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1년 9월 8일(목)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한 명절문화에 대한 요구 높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음식 직접 장만 등 여전히 전통적 방식 유지

하지만 명절맞이에 부담 느끼는 경우 많아 변화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추석 맞아 “양성평등한 명절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발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 포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1년 9월 8일(목)

보도 날짜 : 2011년 9월 8일(목)

언론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자료문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삶의질전략단 김 혜 영 전문연구원

(연락처: 02-3156-7106, 이메일: flash89@kwdimail.re.kr)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낼 계획일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 삶의질전략단은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문화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양성평등한 명절 문화에 대한 요구를 파악한 <“양성평등한 명절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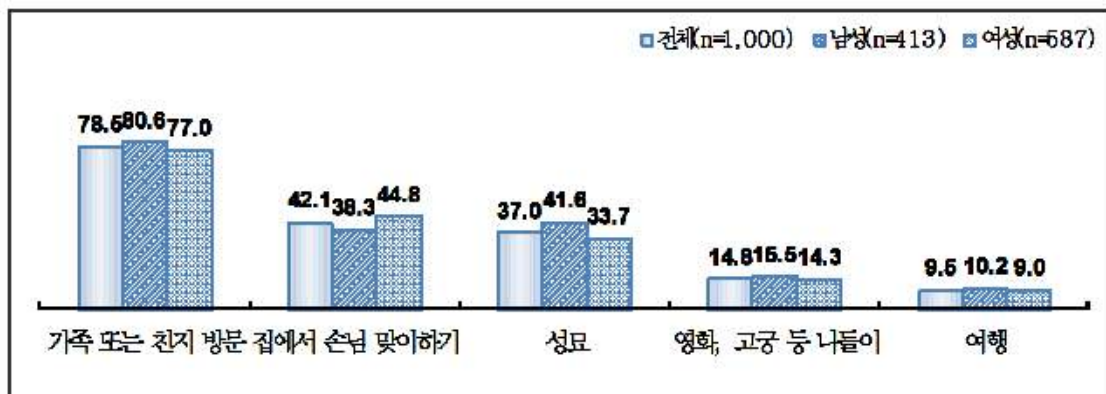
이번 조사는 삶의질전략단에서 운영하는 생활체감정책단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자료에 나타난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다.

※ 생활체감정책단 : 일가족양립,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등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새로운 정책적 요구 발견을 위해 1000여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및 자유제안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추석은 가족 또는 친지방문 계획 많아

- ‘다가오는 추석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하여 계획이 있는 것에 대하여 중복응답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률이 나타난 것은 78.5%가 ‘가족 또는 친지 방문’할 계획이라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 응답률이 나타난 것은 ‘집에서 손님 맞이하기’에 42.1%, ‘성묘’ 37.0%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에는 ‘성묘’ 응답률이 41.6%로 여성 33.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집에서 손님맞이하기’ 응답률은 여성 44.8%로 남성의 38.3% 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1> 추석 맞이 계획(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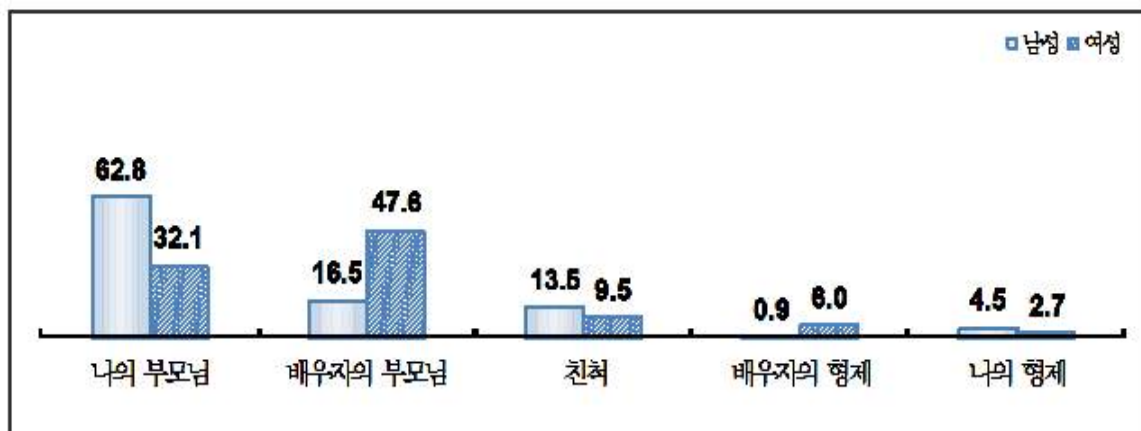
부모님 방문시 친정보다 시댁 먼저,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 부모님 더 챙겨 추석맞이 선물, 남녀모두 비용부담 느끼는 경우 많아

□ ‘가족 또는 친지 방문 시 주로 방문하는 곳’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남성의 62.8%가 ‘나의 부모님’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나의 부모님’으로 응답한 비율이 32.1%로 나타남.

○ 특히, 여성의 경우를 보면,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응답률이 47.6%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응답률이 16.5%인 것과 차이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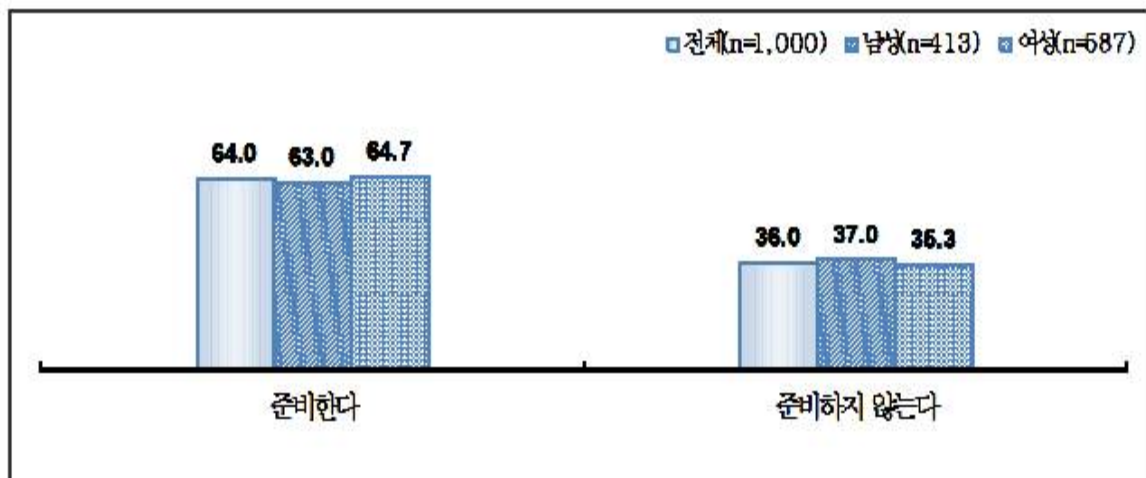
○ 남성의 경우 ‘자신의 부모님’,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을 방문함으로써 여성의 경우 자신의 부모님을 명절에 우선적으로 방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가족 또는 친지 방문 시 방문하는 곳 1순위-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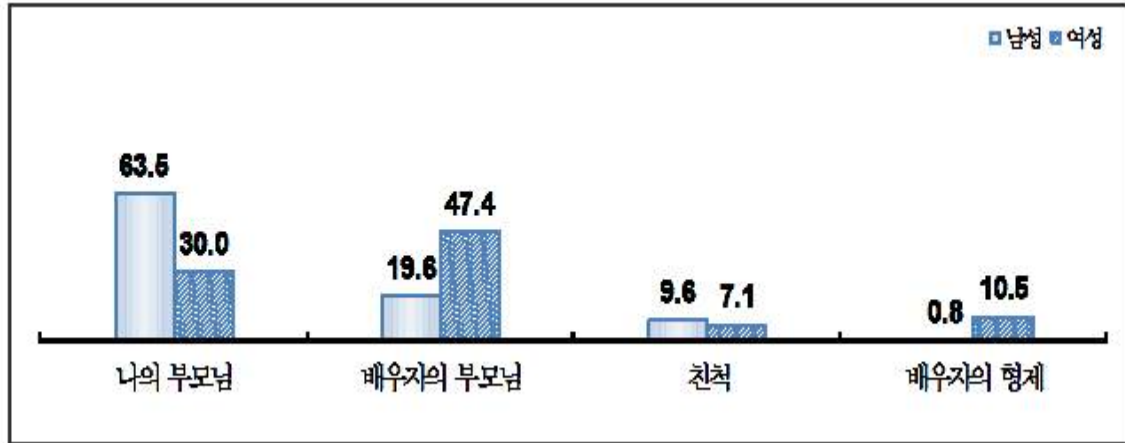
- 추석 때 가족 또는 친지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지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64.0%가 ‘준비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준비하지 않는다’ 36.0%로 나타남. 성별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추석맞이 선물준비 여부



-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 주로 누구를 위한 선물인지에 대하여는 남성의 경우, ‘나의 부모님’에 63.5%, ‘배우자의 부모님’에 19.6%를 응답함. 여성의 경우 ‘나의 부모님’에 응답한 비율은 30.0%,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하여는 47.4%로 남성의 경우 자신의 부모님,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중심 명절 문화가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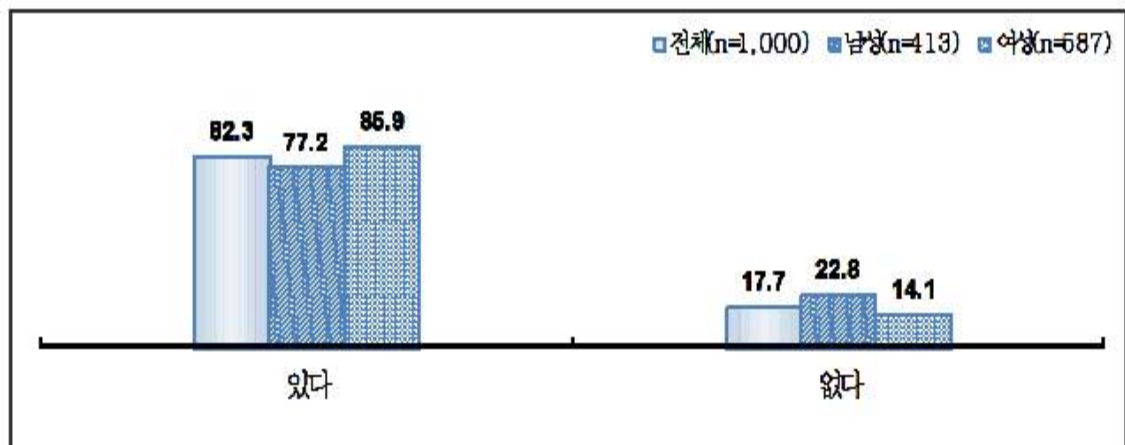
<그림 4-1> 추석 선물 대상-성별



□ 추석맞이 선물준비에 부담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82.3%가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담을 느낀 적이 없다’는 응답률은 17.7%임.

○ 성별로는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률에서 남성 77.2%, 여성 85.9%로 여성이 추석맞이 선물 준비에 부담을 느낀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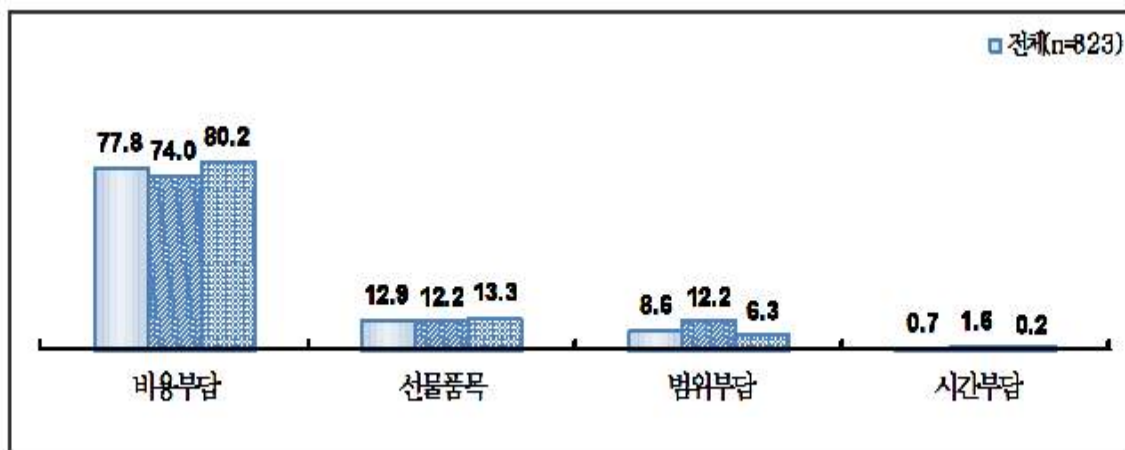
<그림 5> 추석맞이 선물준비 부담 경험



□ 추석맞이 선물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77.8%가 ‘비용 부담’에 응답을 함. 그 다음으로는 ‘선물 품목(무엇을 사야 할지)’ 12.9%, ‘범위 부담(누구까지 포함시켜야 할지)’ 8.6%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비용부담’에 남성 74.0%, 여성 80.2%로 응답률이 나타나 여성의 경우 비용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남성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는 범위를 누구까지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여성보다 더 많이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음.

<그림 5-1> 추석맞이 선물준비가 부담스러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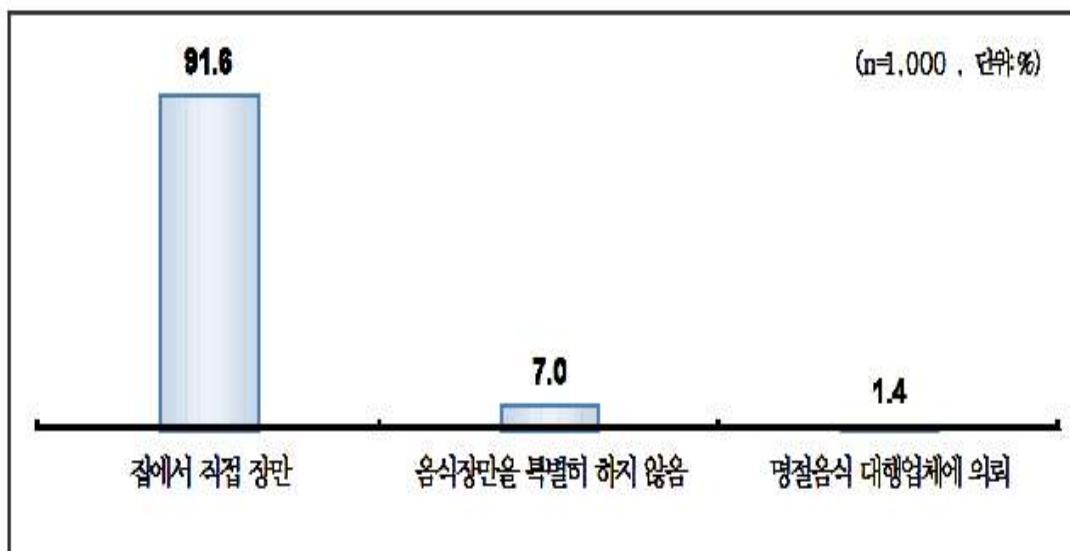


추석맞이 음식, 가족과 함께 집에서 직접 장만

응답자의 91.6%가 ‘집에서 직접 장만’
72.7%는 요즘 시대에 맞게 간소하게 변화 원해

- ‘각 가정별 추석맞이 명절 음식 장만’에 대하여는 91.6%가 ‘집에서 직접 장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특별히 하지 않음’ 7.0%, ‘대행업체에 의뢰’ 1.4%순으로 나타남.
- 추석맞이 음식 장만에 대하여는 각 가정별 ‘직접 장만’하는 문화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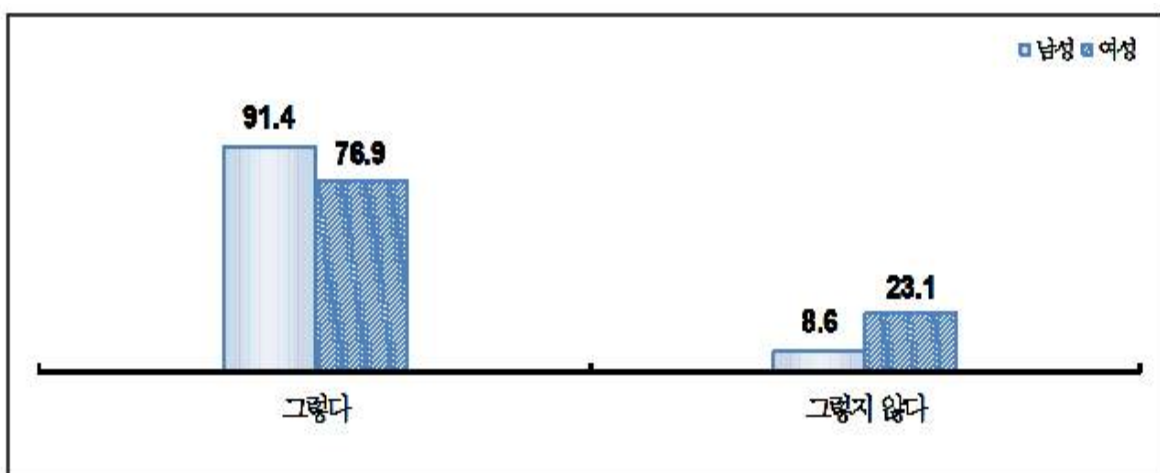
<그림 2> 추석맞이 명절 음식 마련



□ 추석 음식을 집에서 장만하는 경우,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편인가에 대하여 남성응답자의 91.4%, 여성응답자의 76.9%가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을 함. 남성응답자가 가족이 함께 참여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남성이 음식 장만에 가족이 참여한다는 응답률이 여성보다 높은 것은, 긍정적 응답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달리 인식하는 것은 아닐까 사료됨. 즉, 여성의 경우는 가족들이 ‘거의 안하는 수준에 머무는 참여’에 대하여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매우 낮은 수준의 참여에도 ‘함께 참여한다’고 인식하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해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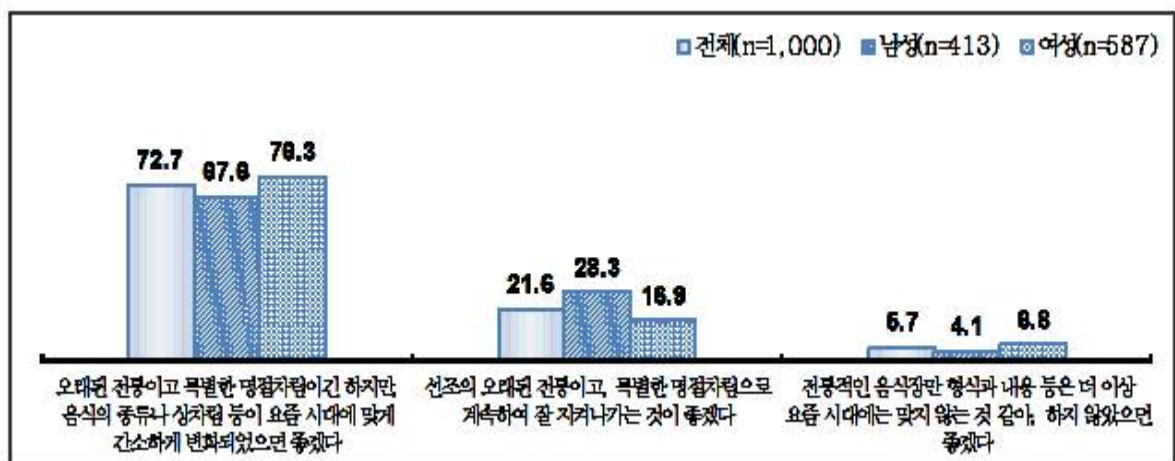
<그림 2-1> 명절 음식 장만 시 가족 참여도-성별



□ 추석맞이 음식장만 전통에 대해 응답자의 72.7%가 ‘오래된 전통이고 특별한 명절차림이긴 하지만 음식의 종류나 상차림 등이 요즘 시대에 맞게 간소하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선조의 오래된 전통이고, 특별한 명절차림으로 계속하여 지켜나가야 한다’ 21.6%, ‘요즘 시대와 맞지 않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5.7%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간소하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률이 남성 67.6%, 여성 76.3%로 여성이 변화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계속하여 잘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률에는 남성이 28.3%로 여성의 16.9% 보다 높게 나타남. 변화에 대한 요구가 여성이 더 높음.

<그림 3> 추석맞이 음식장만 전통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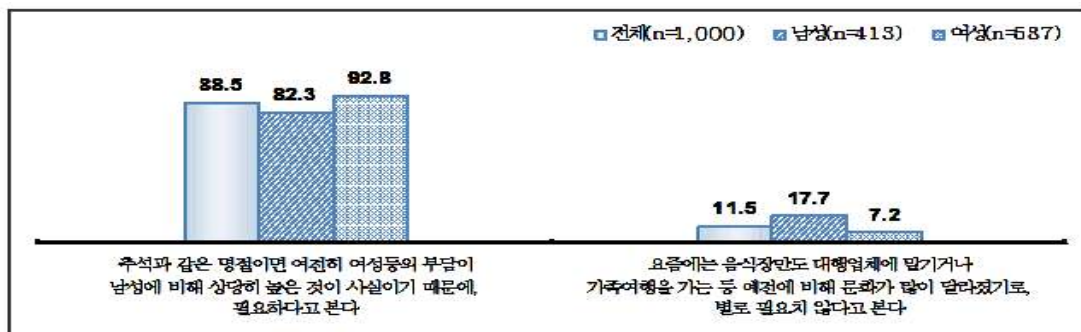


대다수가 '양성평등한 명절보내기 캠페인' 필요성에 공감 양성평등한 명절문화 위해 교육 통한 미래세대 인식변화 필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오랫동안 '양성평등한 명절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해 왔습니다. '명절음식 장만에 온 가족 참여하기', '부모나 친지방문 등에 배우자 양쪽 모두 고려하기' 등은 그 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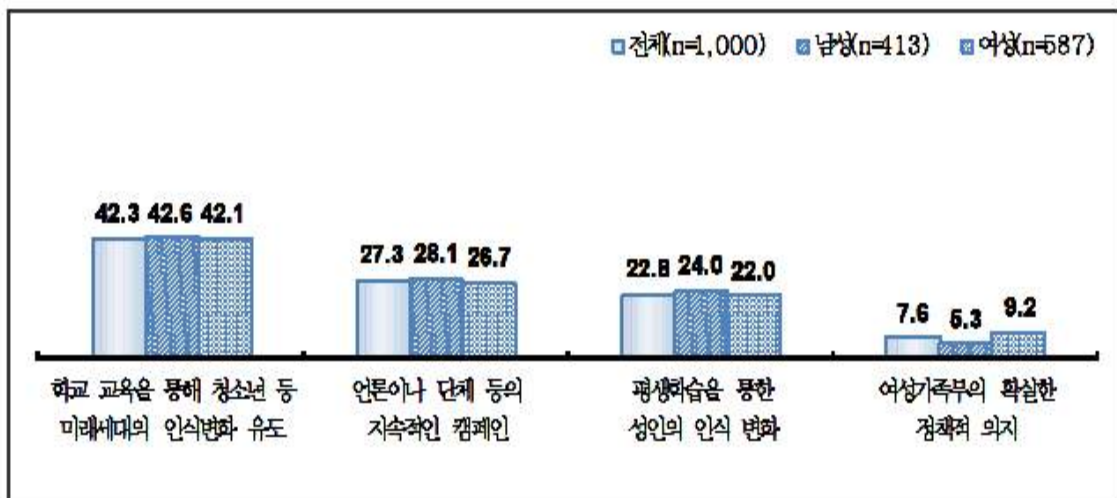
-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이러한 캠페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물음. 응답자의 88.5%가 '추석과 같은 명절이면 여전히 여성(어머니, 아내 등)의 부담이 남성에게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다'는 항목을 선택함.
- '요즘에는 음식장만도 대행업체에 맡기거나 가족여행을 가는 등 예전에 비해 문화가 많이 달라졌기로 별로 필요치 않다고 본다'는 항목을 선택한 비율은 11.5%임.
- 성별로는 '필요하다고 본다'는 응답률이 남성 82.3%, 여성 92.8%로 남녀간 인식의 차이를 보임.

<그림 6> 양성평등한 명절보내기 캠페인 필요성



□ 추석과 같은 명절이 ‘양성평등한 문화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떠한 방침 또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1순위로 꼽은 것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42.3%가 ‘학교교육을 통해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인식변화 유도’에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언론이나 단체 등의 지속적인 캠페인’ 27.3%, ‘평생학습을 통한 성인의 인식변화’ 22.8% 순으로 나타남.

<그림 6-1> 양성평등한 문화 만들기 방안



붙임 1. 조사결과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